

## 발전소 민간 경상정비직 발전공기업 정규직으로?

발전소 경상정비에 참여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발전공기업에서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비정규직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소 경상정비 시장은 한전기공(현 한전KPS)의 독점체제에서 2002년 정부 주도로 '민간 정비 전문기업' 육성을 시작해 6~7개 민간 기업이 전문성을 확보해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왔다. 현재 민간 정비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정비업무의 44%다.

기업들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금화PSC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1749억 원, 고용 인력이 820명에 달한다. 금화PSC, 일진파워 등 일부 회사는 증시 상장까지 마친 상태다.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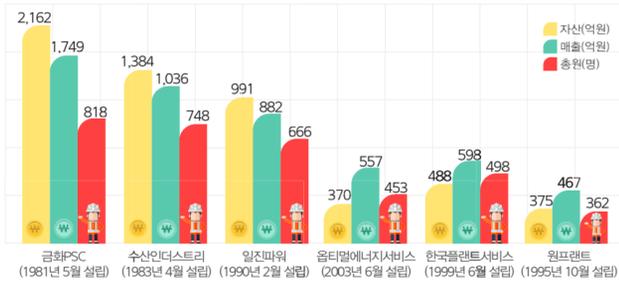
여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중심의 노동계는 경상정비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에 해당하는 만큼 발전공기업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발전소 사망사고의 97%가 외주업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시장상황을 왜곡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들여 육성한 30~40년 된 발전정비 전문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회사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는 "노동계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발전 정비 기업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육성한 전문가며, 이들 인력은 민간 기업의 정규직으로 근무 연수가 20~30년 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7년 민간발전 정비산업 현황



정비업체 "애써 키운 기술자 공기업이 빼내는 꼴" 노동계, 국민생명·안전과 직결 '위험의 외주화' 해당 발전소 경상정비 직원 정규직 전환 범위 두고 논란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느냐도 논란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이 대상이다. 경상정비와 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물량도급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예 논의 대상이 안 된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말하지만 발전소 정비는 베테랑 기술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율을 보더라도 전체 산재율 평균 0.49%보다 훨씬 낮은 0.02~0.03%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민간 정비업체들이 육성한 고도의 기술자들을 공기업이 빼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어 민간기업의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고용측면에서도 민간 정비업체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간접고용 인력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간 정비업체 중에선 노동부 주관 2018년 고용창출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어, 민간 정비회사 소속 인력의 공기업 정규직화는 명분도 없어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로 예상된다.

>>2면에 계속  
유혁덕 기자 yuhd@



2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신재생 에너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을 펼쳐며, 2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 '에너지 혁신 체험의 장'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5일 고양 킨텍스...303개사 참여 에너지 전환·중기 수출 지원 등 논해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체험장이 마련됐다.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고양 킨텍스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관련기사 5면

이번 행사에는 30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이 펼쳐졌다. 2일 개막식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이재승 삼성전자 부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이원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김영선

한국공학기술원 원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파이제르 무스과 스리랑카 장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승일 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원 전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대전은 '깨끗

하고 안전한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총 15개 전시장, 46회 세미나·포럼·교육 행사, 15개 국민 참여 및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큐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두산퓨얼셀, 글로벌원드에너지 등이 참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제품과 기술이 전시됐다. 이 밖에도 국내 중기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0개국에서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 수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2면에 계속 김예지 기자 kimyj@

## 서울시교육청 LED교체 사업 낙찰률 60%대 '추락'

1차 공고 이후 낙찰률 급락 업계 "낙찰하한을 없어 문제"

서울시 교육청 LED조명 렌탈 사업의 낙찰률이 60%대까지 추락했다.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서울개명초등학교 외 31교 LED

렌탈 용역' 사업이 69.5%의 투찰률로 금호이엔지에 돌아갔다. 지난해부터 발주된 사업 중 최저 낙찰률이다.

LED조명 렌탈 사업은 조명 교체 기간 4개월과 임대 기간 120개월(10년)을 합쳐 총 10년 4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청은 LED조명을 설치하는 대로 렌탈사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나

머지 사업비는 렌탈사가 제안한 전기 절감액을 10년에 걸쳐 분기마다 지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한전산업개발은 금호이엔지와 경쟁을 벌인 끝에 낙찰률 90.8%, 16억 8000만원의 입찰액을 써내 우선사업자에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에 발주된 사업은 약 20% 이상 낙찰률이 급감하며 출혈경쟁 양상으로 전개됐다.

현재 개찰을 마친 사업의 낙찰률을 살펴보면 남부교육지원청(69.5%), 북부교육지원청(71.4%), 강남서초교육지원청(71.9%), 동부교육지원청(74.2%) 등 평균 7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업체별 사업 수주 건수로 살펴보면 금호이엔지와 자이에스엔디가 3건, 한전산업개발 2건, 청한 1건 순이다.

아직 중부교육지원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사업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경쟁구도로 살펴봤을 때 평

균 낙찰률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이 낙찰하한을 없이 최저가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년의 사업 기간 내내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로 출혈경쟁을 유도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2면에 계속 김승교 기자 kimsk@

www.tspower.co.kr

# 새로운 시대! 이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TSpower

높은 품질과 기술 및 경영 시스템을 약속하는 발전기·수배전반 전문업체  
티에스파워(주). 고객의 미래에 한 층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주)  
엔진 적용

본사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0 동인스카이빌 203 TEL : 032-566-1661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27번길 44 TEL : 031-988-1573